

◇ 連 載 ◇

齒科醫療管理學概論 — I —

大韓齒科醫療管理學會

會長 崔 在 京

I. 序 論

齒科醫療—dental care라는 概念은 家庭療法—home care 라는가 公衆衛生活動 dental public health activity 라는것과 같이 齒科疾患의 異常이나 豫防·健康增進을 爲하여 行하는 專門의인 手技를 使用하여 處置함을 指稱하고 있는 것이다. 齒科醫師에 있어서 齒科醫療는 커다란 役割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 齒科醫療는 勿論 齒科醫療에 依하여 支持되고 뒷바침되고 있으나 一方으로는 이것을 國民大衆에 널리 배우는 것도 重要한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齒科醫療는 있을 수 없다. 이와같은 뜻에서 齒科醫療는 하나의 社會的인 行動인 것이다.

그리고 齒科醫는 이와같은 齒科醫療를 가지고 生業을 삼고 資本主義 體制下에서 生活하고 所謂 齒科醫業을 營爲하여 가는 것이다.

即 現實의으로 齒科醫業에 있어서는 經濟的 觀點을 無視할 수가 없다. 따라서 實際 齒科醫療를 進行시켜갈 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要件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와같은 것을 齒科醫療를 營爲하여 간다는 立場에서 取扱한다는 것이 齒科醫療(業) 管理—dental practice administration 이라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諸般 社會的條件, 例하면 民族性 國民의 健康水準 生活水準 制度 經濟條件등을 어떻게 改善하며는 幅넓은 國民階層에 日進月步하는 齒科醫療를 供與할 수 있는가 라는 直接的인 問題에 關係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社會齒科學 (socio dentistry) 에서 取扱하는 것이다.

實은 國民齒科保健向上을 爲하여 이와같은 여러가지 條件의 改善이 또한 重要하며 이와같은 意味에서 社會齒科學이 가지는 意義가 大端히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齒科醫療(業) 管理에서 取扱하는 것은 이와같은 것이 아니고 어떠한 주위된 條件下에서 齒科醫療를 生業으로 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取扱하는 것이다.

여기서 齒科醫療(業) 管理라는 것은 齒科醫療(業)의 事務的 或은 事業的인 側面의 手段이나 方法만을 取扱

하는 것이다라고 決定지울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좀더 넓게 齒科醫療라는 것을 現在의 體制下에서 어떻게 하면 合理的으로 해나갈수 있느냐의 問題를 取扱한다고 規定하고 여기에 思考의 바탕을 두어보겠다.

이와같은 뜻에서 齒科開業術이라는것과 다른 觀點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方法論으로서는 單純한 體驗만을 依支하여 組立한 것 이 아니고 많은 事實에서 하나의 原則을 歸納시키고 여기에 應用의 길을 찾아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齒科醫療(業) 管理라는 分野는 아직 幼弱한 것이어서 充分치 못하나 여기에 하나의 體系化를 試圖해 보자는 것이다. 齒科醫療管理라는 말은 比較的 새로운 것이나 多少 內容이 類似한 形態로 齒科醫業의 開業術이라든가 dental economics 라는 말로 表現되어 꽤 오래前부터 있었다고 생각된다.

勿論 새로운 말이 使用되게 되었다는 것은 그 概念으로나 이제까지와 다른것이 導入됨으로써 었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할 必要가 없겠다.

여기서 처음으로 齒科醫療管理를 생각하는데 基礎가 될수 있는 問題를 明白히 해 두어야 하겠다.

1. 醫療의 本質: 齒科醫療管理는 資本主義體制가 운데서는 齒科醫療를 生業으로서 어떻게 合理的으로 해나갈 수 있는가의 原則과 方法을 取扱하는 것이라고 하면 干先 齒科醫療라는 것에 對하여 吟味하여 두어야 하 겠다.

齒科醫療라고 해도 넓은 뜻에서 醫療의 category에 드러가는에는 틀림이 없으나, 먼저 醫療라는 말에 對하여 생각해 본다. 醫療는 아주 簡單하게 말하면 健康의 損傷을 받는 狀態, 即 疾病이나 傷創을 治癒시키고 回復시키는 一連의 行爲를 말하나 오로지 이 경우 그 行爲의 對象도 行爲를 하는 者도 같은 人間이라는 點 또 健康 或은 生命이라는 것이 人間存在에 있어서 大端히 큰 意味를 갖고 있다는 二點으로 他 人間이 行하는 行爲와는 다른 性格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뜻에서 醫療는 宗教에도 가장 가까운 性格을 갖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醫療를 宗教와 區別하고있는 것은

그 行爲의 基礎가 되는 것은 오로지 經驗의인것 特異의인 것이 아니고 合理的이고 普遍的인 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다. 自然科學의 知識에 바탕을 둔것이 即 醫學이다.

이 뜻에서의 醫學은 自然科學의인 知識體系이다. 그 基底는 生物學 (Biology) 이라는 것은 當아는 事實이다.

그러나 넓은 意味를 말하는 醫學은 完全한 뜻에서 自然科學이라고는 할수없다. 그것은 明白하게 目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醫學에 있어서 取扱하는 것은 “生命”에 있어서 sein은 아니다. 그것은 生物의 役割이다. 醫學에는 生命의 sollen을 取扱하는 것이다. 生物學的의 이기는 해도 生物學은 아니다. 醫學은 그것이 單純히 生物學的의 知識體系로서 머무는 限 人間의 福祉에 寄與할 수가 없다. 반드시 行爲가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結局 醫術이다. 生物學的의 知識體系가 그것을 行爲로서 實踐될 수 있는 技術과 着實하게 結合되어 있는 것이 眞實한 意味에 醫學이라 부를 수 있다.

醫學이 取扱하는 것은 오로지 健康의 破綻에 對한 處理뿐 아니라 좀더 나아가서 破綻의 豫防, 거들 이에 增進까지 包含하여 取扱할 必要가 있다는 것으로 認定되고 있다. 이와같이 생각을 하여가면 醫學의 機能은 人對人에서 좀더 넓게 自然對人, 社會對人이라는 경우까지 擴大된다. 이와같은 생각을 包括 醫療 —Comprehensive medicine 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면 또 다른 觀點에서 醫療를 생각하여 보자, 人間은 健康의 破綻이나 健康의 增進에 對處하는데 3가지의 다른 手段이 있다.

- a. 日常生活에서의 注意 home care
- b. 專門의인 處置 professional care
- c. 公衆衛生的의 施策 public health program

健康이 個個人的의 結合되어있고 이들의 生活은 큰 幅이 있는 以上 個個人的의 注意가 큰 役割을 하는 것은 當然하다. 이에 對하여 專門家인 醫師 齒科醫師等의 役割은 健康教育이나 健康指導이다. 그러나 個個人이 健康增進이나 破綻에 對處한다 하더라도 自然的條件이나 社會的條件等은 到底히 處理할 수 없는 點에 부탁친다.

이때 公衆衛生施策이 이를 다하는 것이다. 이때 醫師 齒科醫師의 役割은 顧問的인 것이며 이 2가지의 中間에 狹義의 뜻으로 醫療 —medical care가 있다.

따라서 醫師 齒科醫師와 個個人的의 直接的인 關係가 있고 生物學的의 知識體系에 뒷바침을 받은 技術로서 醫術이 배부러지는 것이다. 即 醫師 齒科醫師와 患者의 直接關係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醫療는 이렇게해서 사람과 사람이 接觸하고 人間存在의 基調라 말할수 있는 直接的인 福祉의 問題를 다룬다는 點에 “또 하나의 것이” 必要하게 된다.

醫의 倫理라든가 醫道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人間

을 생각하지 않는 醫學의 實踐은 있을 수 없으며 醫學은 오로지 自然科學에만 머뭇러 있을 수 없는 理由도 여기에 있다.

2. 醫療의 經濟的 側面: 醫療의 性格은 前節에 記述한것 처럼 여러가지 特異한 性格을 지닌 生業으로서 그리고 資本主義體制에 倅여져가는 現狀下에는 實際的인 諸問題가 많다. 醫療를 經濟的인 面에서 보았을때 다음과 같은 性質의 特異함을 들수있다.

- i) 疾病의 發生은 不測이다.
- ii) 이것은 人對人의 關係로 行하는 “서비스”이고 個別的인 性格을 지닌 注文生産에 類似하다.
- iii) 購買力의 有無·高底에 구애되지 않고 必要性이 優先한다.
- iv) 家計的으로는 消費이나 再生産에 結付되어있다. 그러므로 消費的인 要素와 同時에 投資的인 要素를 가지고 있다.
- v) 患者側에서는 醫療의 價値를 評價할 能力이 없다. 患者는 醫療의 方法이나 手段을 選擇할 수가 없다. 이와같은 醫療가 지니는 經濟的인 特質을 우리에 있어서 極히 重要하며 具體的으로는 醫療費및 醫療報酬에서 考察하겠으나 齒科醫療管理를 取扱하는데 하나의 基礎가 되는 것이다.

3. 齒科醫療의 特異性: 齒科醫療도 勿論 넓은 意味에서의 醫療이며 醫療로서의 性質은 거의 그대로나 實際 齒科醫療에는 多少 몇가지의 特異한 性格이 있다. 여기서 齒科醫療라는 것은 齒科疾患을 治療시키고 또 그의 發生을 豫防하고 또는 齒牙및 口腔의 機能 回復을 圖謀하며 個體를 齒科的으로 健康한 狀態로 이끌기爲한 齒科的의 判斷下에 이르러지는 一連의 行爲를 말하는 것이라 要約할 수 있다. 特히 機能의 破綻을 修復시키는 點에서 多少 特異한 性格을 가지고 있다.

i) 非生物學的의 材料를 가지고 機能의 回復을 行하는 것이 醫療와 結付되어 있다.

義齒나 齒冠 繼續齒架工과 같은 齒科醫療의 手段은 全然 非生物學的의인 材料를 使用한다. 義肢 義眼等의 경우와는 좀 다르나 역시로 드러보면 Contact rense는 비슷하다고 생각되나 이것도 좀 달리하는 것 같다.

ii) 技術的인 手技가 醫療效果에 強하게 結付되어 있다. 이點에서 齒科醫療가 外科系로서 取扱되는 수가 많다. 이것은 修復의 分野에 限定할 수 없으나 齒科醫療를 생각하는데 놓길 수 없는 것이다. 手技의 精度는 mm의 水準이 恒常 要求된다.

iii) 修復分野에는 하나의 狀態에 對한 處理 手段이 大端히 많고 그리고 그 醫療 效果의 幅은 그와같이 크지는 않다. 齒牙欠損等에 있어서 修復手段은 原理的인 것만으로도 많은 方法이 있고 그리고, 經費的으로도 그

幅이 顯著하고 그 醫療效果는 一括로서는 決定하기 힘들다.

iii) 處理手段의 選擇에 있어서 患者의 意思가 關與할 餘地가 있다.

하나의 狀態에 對하여서의 處理手段 마다 經費的으로 是 幅이 있다는 것이 많다는 點에서 手段의 選擇을 齒科醫師만으로는 決定키 어려운 일이었다. 이와 같은 것을 爲해서 齒科醫療에는 患者에 對한 說明—Presentation 이라는 面으로 醫療을 進行시킬 必要가 있게 된다.

4. 齒科醫療管理와 社會科學: 齒科醫療管理란 美國에서는 概念이나 한마디로 말해서 資本主義體制 가운데 前述한 것처럼 特異한 性質을 지닌 齒科醫療은 生業으로 할때 合理的으로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問題를 取扱하는 것이다. 따라서 經濟的인 問題도 있고 事務的인 問題도 取扱되나 또 齒科醫療 自體의 나날 方向 齒科醫師를 둘러싼 各種의 問題가 當然히 包含된다. 이와같은 넓은 各種問題를 오로지 經驗的인 取扱도 實際 도움이 되는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原則的인 問題나 法則性을 따라서 言及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요새 醫療保險의 氣運이 싹트기 始作했으나 앞으로 實施에 따라 많은 變化를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醫療保險制度 및 그 運營問題는 齒科醫師會에서도 中心的인 것이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齒科醫療經營을 생각할때 이 問題를 關連시키지 않고는 안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問題·檢討에 臨하여 重要한 것은 社會科學的인 觀點이다. 齒科醫療에 따라서 이와같은 社會科學的인 觀點이 充分치 않키 때문에 問題의 本質을 놓치거나 適切한 施策을 세우지 못하고 또 社會 他分野에 對한 說得力이 미치지 못한 事例은 周邊에 얼마든지 볼수있다. 이같은 齒科醫療을 둘러싼 社會的 經濟的條件에 對한 檢討는 實은 齒科醫療管理의 일은 아니다. 齒科醫療管理에서 取扱하는 것은 주어진 社會的 條件 안에서 齒科醫療

를 가지고 또는 生業으로 어떠한 樣相으로 밀고 나가는 가가 問題이다. 結局 齒科醫療管理는 制度나 社會的 經濟的 條件의 주어진 것으로 그안에서 問題를 取扱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運營等에 對한 檢討 그 改革의 基礎를 求하는 일도 勿論 重要하다. 이같은 問題는 社會學—Social dentistry 이다. 醫療는 醫學을 生物學的인 테두리안에서 取扱하여서는 참된 國民大衆의 福祉 增進에 寄與할 수 없으며 傷病이나 健康問題와 社會的條件과의 關連을 다르는 것이 公衆保健이다.

여기서는 醫學의 社會的 適用이 큰 眼目으로 이르고 即 疾病이나 異常의 豫防 健康回復, 社會復歸等 問題가 그것이다. 醫療를 둘러싼 社會條件, 社會條件과 健康과의 相互關係, 그의 改善을 爲한 施策 原則等을 取扱하는 것이 社會學—Social medicine이라하고 齒科醫療에 있어서 같은것을 取扱하는 것이 社會齒科學 Social dentistry 이고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問題가 取扱된다.

齒科醫療需要 (Dental needs)

醫療의 社會化 (Socialization)

齒科醫療의 費用 (Cost of dental care)

齒科醫療의 體系, 法則, 運營 (Administrative aspect)

齒科醫育制度 (Dental education)

이와같은 社會齒科學의 內容도 方法도 確立되어 있지 않으므로 齒科醫療管理를 取扱하여갈때 多少 關連이 된다는 點에 對하여 社會科學的인 觀點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안되므로 齒科醫療管理는 어디까지나 이 條件下에서 齒科醫療를 運營取扱하여 가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醫療保險制度의 實施나 醫療體系 醫療制度의 改革等에 對한 原理는 社會齒科學의 取扱하는 範圍이고 齒科醫療管理의 것은 아니다.

<다음號에는 醫科齒療史에 對해서 記述함>

◇ 各種齒科器材一切具備

賣買·修理·配達

◇ 地方注文歡迎

京 南 齒 科 商 社

서울永登浦區洞 永登浦 2洞 16番地

電 話 (62) 7347